

“광주서 옷자랑 말라” 불 밝히는 충장으로 패션거리

충장로 유일 ‘모다인패션디자인학원’

“광주에서 옷 자랑 하지 마라.”

충장로, ‘패션의거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언제 적 충장로나고 되물음지 모르지만 사실 90년대까지만 해도 내로라 하는 명인들의 양장점이 이곳 구도심을 휩쓸적이었다. 당시 대학 입학, 취직, 무대에 설 때, 결혼 등등 삶의 주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충장로를 찾았다. 이제 충장로에 유일하게 남은 ‘모다인패션디자인학원’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모다인패션디자인학원’은 오늘도 충장로 패션의거리에서 불을 밝히고 있다.

이곳엔 미래 패션디자이너를 꿈꾸는 고교생부터, 대학 전공생, 취·창업 목적으로 한 수강생까지 다양하다.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은 양장기능, 의류봉제 등 15개 과목. 수강료 일부를 정부지원금을 통해 지급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나 실업자훈련 정책 등을 활용한 학원 운영이 큰 장점이다. 학원에는 학생들이 만든 여성 드레스부터, 페브릭 공예품, 디자인 스케치들이 눈길을 끈다.

최근 학원 출신 강태석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23)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2회 2023 아시아 세계기술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

양장기능·의류봉제 15개 과목 전공생부터 취창업 목적 수강생까지 디자인부터 재봉 직접 아시아 세계기술대회 ‘메달’도

다. 수강생들은 양장기능사, 패션디자인 산업기사 등에서 90% 합격률을 자랑한다. 매일 학원에는 미래 패션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의 열정이 가득하다.

임정우(17)군은 “성격 자체가 지루한 것을 싫어했는데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 분야에 관심이 생겨 등록했다”며 “최근 스마트 미래도시를 콘셉트로 한 옷을 디자인해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대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곽승우(17)군은 “최근 낙화라는 시에서 영감을 받아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했다. 이별과 웨딩 사이에서 오는 모순을 옷을 통해 표현했다”며 “느낀 감정이나 영감을 옷의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꽤 흥미롭다. 언젠가는 패션디자인 국가대표



광주 충장로에 있는 ‘모다인패션디자인학원’에서 수강생들이 옷 디자인을 하고 있다.

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집(17)군은 “학원에서 양장 기술을 배워 부모님께 옷을 선물했을 때 뿌듯했다”며 “옷을 어떻게 만드냐고 다들 놀라워한다”고 말했다.

김은정(28)씨는 농업인 작업복 브랜드 론칭을 위해 학원을 찾았다.

김 씨는 “대학 전공은 이 분야가 아니

다. 의류수출 회사에 근무하면서 옷에 관심이 생겨 퇴사하고 학원까지 다니고 있다”며 “광주에서 다시 패션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성연 모다인패션디자인학원 원장은 2000년대부터 패션의거리에서 의류 관련 사업을 하면서 충장로를 떠난 적이 없다. 전 원장의 고향은 충장로 패션의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성연 원장은 “의류 관련 기술자들이 광주에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가는 것이 학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광주에서 옷 자랑 하지 말라는 말이 다시 통용될 때까지 후학 양성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내년 3월까지 ‘호남의 기억과 시간’ 기획전

광주시립미술관, 한국화 등 50여점

광주시립미술관은 2023 소장품 기획전 ‘수집_호남의 기억과 시간’을 내년 3월10일까지 제3·4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그간 시립미술관이 이뤄온 온 광주미술사, 근현대미술사 관련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다.

1992년 개관한 시립미술관은 총 5385점(지난해 수집 기준)의 근현대관련 국내외 미술작품을 수집했다. 전시는 2022년 수집한 신소장품을 포함, 5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작품수집을 통해 호남의 역사, 지리, 사회, 문화 등을 연구하고 보존하여 미래의 가치와 방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술관 수집 작품을 활용해 시민에 미술을 접하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미술인에게는 창작의 영감을 전한다.

전시는 ‘호남의 역사와 풍경’, ‘호남미술의 역량’, ‘호남미술과 미술관’ 등 3가지 소주제로 구성됐다. ‘호남의 역사와 풍경’은 광주시립미술관이 지역 대표 미술관으로서 호남의 역사적 사건이나 여러 장소를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작품, 무등산 등 미려한 산천, 호남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로 구성했다.

김준기광주시립미술관관장은 “광주미술, 호남미술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소개하는 전시”라며 “미술관 수집사업이 광주미술문화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지역 역사와 가치를 홍보하는 활동임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ACC, 내달 17일 예술극장 극장1서 신년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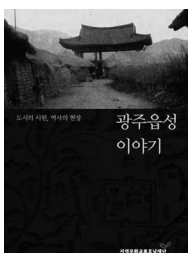
역사문화 한눈에 ‘광주읍성 이야기’ 발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김덕진)은 여행으로 만나는 광주 역사문화 자원 ‘광주읍성 이야기(사진)’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광주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에 대해 조사와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광주읍성의 대표 누각이었던 회경루가 중건됨에 따라 자취를 감춘 유적의 동시대 의미를 담은 도서물 ‘광주읍성 이야기’를 편찬했다.

‘광주읍성 이야기’는 광주읍성과 읍성 내 공간(조선시대 관아건물)을 중심으로 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림수, 경양방죽, 향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물, 사건, 기록물, 유적, 건물, 선정비, 금석문 등과 그곳에 담긴 시와 이야기 등을 담았다.

김덕진 이사장은 “광주읍성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접할 수 있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다”며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새롭게 인식하고 광주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 콘텐츠로서 기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오는 2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읍성 이야기’ 책자 기증식을 진행한다. 책은 관내 초·중·고에 비치된다. 추후 국공립도서관과 문화기관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도선인 기자

KBS교향악단 오케스트라

“수준 높은 ACC 신년음악회와 함께 힘찬 2024년 새해 맞이하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024년 새해와 ACC재단 설립 2주년을 기념해 오는 1월17일 오후 7시30분 예술극장 극장1에서 ‘ACC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신년음악회는 여자경의 지휘로 KBS교향악단의 품격 있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국내 유명 성악가 3명이 협연자로 참여한다.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해 매년 100회 이상의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온 단체다. 이번 공연에서는 새해를 웅장하게 시작하는 ‘드보르자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비롯, 대중적이고 익숙한 오페라 아리아, 가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

보일 예정이다.

특히 협연 성악가들이 오페라 푸치니의 ‘토스카’, 구노의 ‘파우스트’,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 등 유명 아리아와 함께 레온 카발로의 ‘아침의 노래’, 김효근의 ‘첫사랑’ 등 다양하고 친숙한 연주와 노래를 선사하며 희망찬 새해 맛을 기원한다.

협연자로 참여하는 소프라노 황수미는 2014년 ‘윈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로, 현재 독일 본 극장(Theater Bonn) 솔리스트로 활약 중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올림픽찬가’를 부르는 등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 및 거장 지휘자들과 함께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어 테너 정필립은 ‘팬텀싱어’에 출연하여 ‘미라클라스’를 결성, 준우승을 차지한 실력파다. 정동 클래식과 크로스오버를 모두 아우르는 뛰어난 실력을 선보이며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은 2016년부터 2019까지 전 세계 국제성악콩쿠르를 휩쓸며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2020년 ‘팬텀싱어’에서 ‘레떼아모르’를 결성한 뒤 클래식, 뮤지컬, 크로스오버부터 트로트까지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진심을 다해 노래하는 모습으로 꾸준히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ACC재단 설립과 새해를 기념해 매년 1월 17일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하는 ‘ACC 신년음악회’를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며 “가족, 친구 등과 함께 공연을 보며 문화예술로 한 해를 설계하고 시작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ACC 신년음악회’ 관람료는 R석 4만원, S석 3만원이다. 예매는 ACC 누리집(www.acc.go.kr)을 통해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